

침구경험방 어떤 책인가?

취혈에서 치료까지 52항목으로 구성

임상경험 바탕으로 실용적 내용 가득

허임은 침구경험방의 서문에서 “평소에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대략 편집하고 차례를 지어 먼저 병을 살피는 요지를 저술하고, 아울러 질병의 전환 구조를 논하고, 보사의 법을 밝히고, 취혈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았다. 또 잡론 약간을 저술하고 효과를 시험해 본 중요한 경혈과 병에 합당한 약을 기록하여 합해서 한권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침구경험방은 1권 분량으로 침구이론을 요약하고, 질병별 침뜸 치료에 임상 경험을 최대한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침구경험방은 5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서문, 전반부, 후반부, 발문으로 짜여 있는데 임상과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문에는 허임이 침구경험방을 쓰게 된 동

기와 주요 구성에 대해 실려 있다.

허임은 서문에서 “명민하지 못한 내가 어려서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의 집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노력하여 어렵듯이나마 의술에 눈이 뜨였는데 지금 늙어서까지도 올바른 법이 전해지지 못할까 근심한다.”며 “읽는 사람들이 뜻을 더해서 구급활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반부는 총론으로 유행정리, 경락병기, 취혈법, 침구이론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잘못잡은 혈(와혈,訛穴) ▲오장의 병증 ▲신체의 해당 장·부·경 ▲오장육부 관련 병 ▲십이경 주요혈 ▲침구법 ▲별혈 ▲모혈·원혈·회혈 ▲십이경정형수경합방통 ▲치수를 재는 법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론은 총 44항목으로 신체부위별, 내과, 외과, 전염병, 부인병, 어린이병 등을 계통별로 나뉘어 분석·정리되어 있다. 맨 끝에는 침구택일에 대한 내용도 있다. 마지막 부분에 내의원 제조 이경석의 발문이 실려 있다.

침구경험방은 간결하고 병기, 수혈, 경락, 침구이론(보사법, 금기, 취혈법 등), 병증별 침구처방, 침구기법과 시술 경험 등 침구 전반에 걸쳐 잘 정리되어 있는 침구의서이다. 의약에 관한 단어 중 몇 군데는 한글을 덧붙였다. 주로 허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편술한 것이고, 특히 뜸을 이용한 치료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 의서를 베끼지 않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었고 실용적이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陰疾 陰五淋	痢疾	厥逆	諸風	腰脊	積聚	腹脹	齒部	咽喉
霍亂	瘧疾	急死	癰疽	脚膝	手背	腫脹 穴中腫 穴手足腫	心胸	頰頰
陰疾 陰五淋	痢疾	厥逆	諸風	腰脊	積聚	腹脹	齒部	咽喉
陰疾 陰五淋	痢疾	厥逆	諸風	腰脊	積聚	腹脹	齒部	咽喉

침구경험방 목록

인터뷰

침구경험방 간행의 산파 - 내의원 제조 이 경 석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해야 합니다!”



내의원 제조 이경석

침구경험방 출간의 숨은 공신이 있다. 책의 끝에 발문을 쓴 내의원 제조 이경석이다. 그를 만나 침구경험방이 나오기까지 뒷이야기와 조선 침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본다.

기자 : 침구경험방이 세상에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경석 : 전란(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병이 들거나 곤궁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임금님께서 늘 만백성의 건강을 염려하였다.

그 뜻을 받아 지금 수상인 북저 김류가 내국의 도제조를 맡고 있고 내가 마침 그 아래 있어 호남관찰사 목성선 공에게 부탁하여 침구경험방을 간행하게 되었다.

기자 : 저자 허임은 어떤 분인가?

이경석 : 태의(太醫) 허임은 평소에 신의 의술로 일컬어졌고 평생 동안 치료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가 없다. 그중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경우도 많아 일세에 명성을 떨쳤으며 침의들에게서는 으뜸으로 추앙되는 분이다.

기자 : 침구경험방의 특징은? 이경석 : 분명치 않은 것은 분명하게 하고, 번거로운 것은 요약하고, 틀린 것은 바로 잡았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중요한 묘방이 한번 책을 열면 곧

바로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간략하면서도 쉽고, 요약되었으면서도 상세한 것이 특징이다.

기자 : 평소 침구에 대한 생각은?

이경석 : 증세를 살펴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약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귀한 약재는 평소에 모아두지 않으면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나 침놓는 것과 뜸 뜨는 것은 그렇지 않다. 구비하기가 쉬우면서도 그 효과는 매우 빠르다.

기자 : 침구경험방이 어떻게 쓰이길 바라나?

이경석 : 경험방을 얻어 증세에 따라 치료하면 집집마다 ‘신의 의술’을 만날 수 있어 백성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땅히 세상이 공유하여 널리 전하고 없애거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보전하여 훗날 사람들이 이어가도록 했으면 한다.



‘신의(神醫)’의 가난한 생활

허임은 양양의 관노였던 아버지 허억봉과 김귀영가의 종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집에서 일하며 의술에 눈을 뜬 그는 임진왜란 때 치종교수로 전장을 다니며 침과 뜸으로 수많은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었다.

침술로 일세에 이름을 날리던 그는 내의원 침의로 천거됐다. 허임은 1604년 선조의 편두통을 침 치료로 낫게 한 공으로 당상관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다. 광해군 즉위 다음해인 1609년 10월, 당시 허임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를 딱하게 여겨 허임에게 마전군수에 임명하지만 사헌부와 사간원이 즐기게 반대해 성공하지 못했다. 허임은 그 후 광해군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경기 지방 수령직에 임명되는 등 이례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천출이었던 신분 때문에 양반관료들이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 평탄한 벼슬생활을 하지는 못했다.

그는 늘 백성들 가운데서 인술을 베풀면서 살고자 했다. 이 소망은 명의를 가까이 두려고 하는 임금의 명령에 의해 번번이 실패를 하고, 내의원 침의의 직무를 맡아야 했다. 1610년 초 허임이 나주에 가 있었는데 광해군이 한양으로 불러들였다. 사헌부는 허임이 여러 번 재촉했는데도 안 온다며 임금을 무시했으니 국문하라고 요구했다. 광해군이 거절해 국문은 면했으나 허임이 나주에 정착하려고 했던 일은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년이 지나서야 허임의 꿈은 이루어졌다. 충청도 공주 주변 금강의 곰나루 건너 평범한 농촌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이곳 공주에서 인술을 베풀며 침구술을 후진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나이 70대 들어 자신의 의술에 대한 견해와 임상가로서 치료경험을 고스란히 담아 침구경험방을 집필했다. 비록 천출이었으나 신분의 굴레를 극복하고, 병들고 아픈 무수한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